

# 간질환의 대표적 증상은 전신 쇠약감과 피로감

전재윤(연세대 소화기 내과 교수)



## 간질환의 증상

간질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가장 많아 전체 간질환의

약 70~80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알콜성 간질환이다.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는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이 있는데 만성 간염인 경우에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간경변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은 간암으로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간질환의 일반적인 증상들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간질환 중에서 바이러스 간염(급성 및 만성), 간경변증 및 합병증과 간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간질환의 일반적인 증상

간은 우리 몸에서 단일 장기로는 가장 큰 장기이며 단백질 합성, 당분과 지방질의 대사, 아미노산의 합성, 약물과 호르몬의 대사와 에너지 공급 등 다양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간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은 전신 쇠약감이나 피로감이다.

이 외에도 식욕 부진, 오심과 구토, 소화불량 등 소화기

계 증상이 생기는 수도 있고, 두통, 의욕 상실,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 전신적인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일 전신 쇠약감과 피로감이 일시적으로 며칠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있다거나 한 번 생긴 후 없어졌다가 다시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우선 간질환을 의심해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전혀 신체적인 질환이 없어 신경성이거나 과로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간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2. 바이러스성 간염

우리 몸에서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30여 종이 되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바이러스는 A, B, C, D형과 E형이며 최근에는 F형과 G형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서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급성 바이러스 간염의 임상 증세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하며 경과를 시기에 따라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된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여 자각 증상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환자는 자각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증식하는 시기로서, 그 기간은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잠복기가 지나면 전구 증상기가 오는데 마치 감기몸살

과 매우 흡사하며 황달이 생기기까지의 기간으로서 증상이 다양하다. 대개 식욕 부진, 오심, 구토 또는 소화 불량 등의 소화기 증상과 전신 쇠약감, 피로감 또는 발열 등의 전신 증상이 생긴다. 급성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 생기는 식욕 부진은 특이한 경우가 있어 음식의 맛을 모르거나 이상 감각을 느낄 때가 있고, 담배를 피워도 맛이 달라지거나 맛을 몰라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황달기는 전구 증상이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소변 색깔이 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변하고 눈의 공막도 황색으로 변하며 피부도 진한 노란색으로 착색된다. 급성 바이러스 감염을 앓는 중에 황달이 없는 경우가 황달이 있는 경우보다 후에 만성 감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황달이 서서히 소실되면서 회복기로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 환자는 편안함을 느끼고 대부분의 자각 증상은 소실된다.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이 일단 생겨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대개 3~4개월이 걸린다.

급성 감염을 앓고 난 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만성 감염으로 이행되는데 만성 감염이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간의 염증성 병변을 말한다.

만성 감염의 자각 증상은 소화 불량, 오심, 구토 등 소화기 증상과 전신 쇠약감, 피로감, 식욕 부진 등 전신 증상이 있고, 그 외에도 황달이 생기는 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만성 감염의 경우에는 황달이 있는 경우보다 황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만성 감염 환자에게서 황달이 생기는 경우에는 황달이 없는 경우보다 예후가 불량하다.

만성 감염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이지만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경과에 따라 변화가 있고 코로나 운동 후에 심해지는 수가 있다

### 3. 간경변증

만성 감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해 오면 합병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간경변증 환자의 대부분이 간경변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로 병원을 찾아오게 된다.

간경변증의 합병증에는 복수, 문맥압 항진증과 간성혼수의 3대 합병증이 있고, 그 외에도 간신 증후군, 특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합병증들이 있으며 간경변증 환자는 경과중에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간경변증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들이 신체의 여러 장기에 생길 수도 있지만, 반면에 간경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는 수도 많다. 환자 자신은 간경변증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내 왔는데 간질환 이외의 다른 증상이나 소견이 있어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 비로소 간경변증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수도 있다. 평소에는 간경변증이 있는 줄 모르고 지냈으나 간질환 이외의 외과적 질환, 예를 들면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으로 인한 출혈이나 천공 또는 유문부 협착, 급성 담낭염이나 급성 충수돌기염 등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수술 도중 간 표면을 관찰해 본 결과 우연히 간경변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4. 간암

간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이다. 심외부(명치)나 우상복부 동통이 가장 많은데 이와 같이 복통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에 검사를 해 보면 간암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수술이나 내과적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다 해도 완치시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통 외에도 체중 감소, 부종 및 복수, 식욕 부진, 오심 및 구토 등의 증세가 생기기도 한다. 간암의 크기가 작은 초기에는 3센티미터 미만인 경우를 소간암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발견되면 수술이 가능하고 알콜 주입법이나 간동맥색전술 등 내과적인 치료법으로 완치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간암이 생기기 쉬운 사람들은 자각 증상이 생기기 전에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만 간암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초기에만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하다

간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의 자각 증상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간기능 검사, 바이러스 표지자 또는 자가면역 표지자 검사, 영상 진단법, 복강경 검사법, 간혈관 조영술과 간조직 검사 등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다

## 간질환의 진단

### 1. 간기능 검사

간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 당분과 지방질의 대사, 아미노산의 합성, 약물과 호르몬의 대사와 에너지 공급 등 다양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하므로 '거대한 화학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와 같은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즉 간의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혈액 검사로써 간기능 검사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간기능 검사라고 하면 총단백, 알부민, 빌리루빈(황달이 있는 경우에 증가), 알카라인 포스파타제, 지오티(GOT), 지피티(GPT), 감마지피티( $\gamma$ -GPT),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프로트롬빈 시간 등을 검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여 간세포 괴사와 간담도 폐쇄를 감별하게 되는데 간세포 괴사인 경우 다른 간기능 검사는 정상이거나 약간 증가할 수도 있으나, 지오티와 지피티가 특징적으로 증가하여 30 이하가 정상인데 수백 또는 수천까지 증가할 수 있고 황달이 동반되는 수도 있다

### 2.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

우선 혈액 검사로써 간기능 검사를 하여 간기능이 정상인지 또는 이상인지를 감별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간기능 검사의 결과로 간세포 괴사에 의한 이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간세포 괴사에 의한 이상인 경우에는 간세포 괴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이러스, 알콜, 약물 및 독물, 대사성, 침윤성, 자가면역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바이러스 또는 자가면역이 그 원인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나 자가면역 표지자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

### 3. 자가면역 표지자

자가면역성 만성 간염은 우리 나라에서는 드물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만성 간염의 원인 중에서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주로 젊거나 중년 여성인 경우에 많이 생

긴다.

자가면역성 만성 간염 환자는 간기능 검사상 만성 간염의 소견을 보여, 원인을 알기 위해 우선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로써 B형, C형을 검사한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과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anti-HCV)가 음성이면 일단 자가면역 만성 간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 4. 종양표지자

종양 표지자 검사란 혈청 검사로 암을 진단하는데 이용되는 검사법이다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종양 표지자(tumor maker)는 HCG, CEA, PSA와 aFP 등이 있다. HCG는 여성 종양인 음모상피암, CEA는 대장암, 췌장암과 간담도암, PSA는 전립선 암의 진단에 이용되고 aFP는 간암의 종양 표지자이다

### 5. 영상 진단법

간질환을 진단하는 데 이용되는 영상 진단법에는 간 주사, 초음파 검사, 전산화 단층 촬영(C-T)과 자기공명 영상(MRI) 등이 있다.

#### 1) 간 주사

간 주사는 여러 가지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동위원소를 정맥내로 주사하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동위원소가 간에서 흡수되는데, 동위원소가 간에서 흡수된 상태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각종 간질환을 진단하는 데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이용되지 않고 간암이나 간경변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용한다. 간암인 경우에는 간암이 있는 부위가 공간점유성병변으로 나타난다.

#### 2) 복부 초음파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라고 하면 간뿐만 아니라 담도, 담낭, 췌장, 비장 등 복강 내에 있는 장기들을 모두 검사할 수 있다. 위, 소장이나 대장 등의 병변도 진단할 수 있다.

간질환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은 매우 크다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을 감별할 수 있으며 간경변증을 진단할 수 있으며 간경변증 환자에게도 볼 수가 있는지

여부, 비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간암이 생겼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다. 또한 간암의 진단에 유용하기 때문에 간암이 생기기 쉬운 사람들, 즉 '간암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간암을 치료가 가능한 소간암의 상태로 발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바로 복부 초음파 검사이다

### 3) 전산화 단층 촬영(CT)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진단하기 위하여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초음파 검사상 진단이 애매하거나 간경변증 외에 간에 종괴가 발견되는 경우에 간의 종괴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즉 간암인지 또는 간혈관종인지 아니면 그 외의 간종양인지를 감별하기 위하여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와 전산화 단층 촬영은 간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으므로,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

### 4) 자기공명 영상(MRI)

자기공명 영상 진단법은 여러 가지 영상 진단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진단법으로 임상적 유용성이나 효과 등은 전산화 단층 촬영과 유사하다.

전산화 단층 촬영은 간이나 또는 간에 생긴 종괴를 한 방향으로의 절단면으로 얻을 수 있으나 자기공명 영상은 원하는 방향, 어느 방향으로도 절단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에 생긴 병변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진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6. 복강경 검사 및 간조직 검사

복강경 검사란 복부의 일정 부위에 부분 마취를 한 후 복강 내에 일정량의 공기를 주입하여 배를 부르게 하고 복강경이라는 기구를 배 안으로 넣어 복강경 기구 앞에 달린 불빛을 이용하여 복강 내의 여러 장기를 배를 열지 않고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진단법을 말한다

간경변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간조직 검사보다도 복강경 검사상 간 표면의 육안적 소견이 진단에 더 도움이 된다

## 7. 간동맥 조영술

간동맥 조영술은 간동맥을 찾아서 조영제를 주사하여 간의 혈관 분포 상태를 알아보고, 간암이 있는지, 또는 어느 부위에 있는지, 간암이 몇 개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간동맥 조영술상 간암으로 확인되면 간암으로 가는 동맥을 색전물질로 막아줌으로써 간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간암의 괴사를 유도하는 소위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하게 된다

## 간질환의 치료

### 1 급성 간염

인체에서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약 30여 종이 있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A형, B형, C형, D형과 E형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원인 바이러스에 관계 없이 임상 증세가 거의 비슷하며,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도 원인 바이러스에 관계없이 비슷하다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에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제의 사용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급성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치료는 안정과 식이요법이 주된 치료법이다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에게 안정이 필요한 이유는 간의 주된 작용이 대사 기능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그만큼 간의 작용이 많아지므로 안정을 함으로써 간의 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급성 바이러스 간염의 식이요법의 원칙은 충분한 칼로리의 영양가가 고른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고단백 식이를 공급하여 간염의 급성기를 20 퍼센트 정도 감소시켰다고 하며, 1950년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단백 식이가 급성 간염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 2. 만성 간염의 치료

만성 간염의 치료는 만성 간염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서 다르며 모든 만성 간염 환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치료법과 원인적 치료법이 있다

일반적 치료법에는 안정,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이 있

고 원인적 치료법은 만성 간염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만성 간염 원인 중 가장 많은 B형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치료를 말한다. 면역기 전의 장애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면역성 만성 간염인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 등을 말한다.

## 1) 일반적인 치료법

### ① 안정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 환자에게는 안정 가료가 필요없고, 일상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각 증상이 생겼을 때 아예 회사를 휴직하고 쉬기를 원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만성 간염인 경우에는 적당한 운동과 활동이 더 바람직하다.

### ② 식이요법

만성 간염 환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 못하고, 반대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단백질 식이요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성 간염의 급성 악화기에는 오심과 구토가 심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탄수화물의 섭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럴 경우엔 탄수화물을 포도당 정맥주사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성 간염 환자들 중에는 병원에 가도 약을 주지 않으므로 '만성 간염은 고칠 수 없다', '만성 간염은 병원에 가 봐야 소용 없다' 또는 '만성 간염은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나 건강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간을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③ 약물요법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만성 간염의 원인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치료 효과가 뚜렷한 간장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염 환자의 치료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시리마린제제의 간장약은 동물 및 임상 실험 결과 급성 간 손상에 대해서 간세포 파괴를 방지하여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에 지방이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투여하는 경우에 간 기능이 다소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간염 환자들은 만성 간염을 갖고 있으면서 그 외의 다른 질환이 생겨 그 병 때문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만 한다. 또 약물 중에는 간 기능을 손상시키는 약물들이 있으므로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2) 원인적 치료법

만성 간염의 원인적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바이러스성 만성 간염과 자가면역성 만성 간염이다.

만성 B형 간염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근거는 만성 B형 간염이 때로는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급성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간부전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에 쓰이는 약제는 면역 증가 또는 면역 조절 약물과 항바이러스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로서 항바이러스제제가 필요한 경우는 간 내에 왕성한 바이러스의 증식이 있는 경우와 간세포 손상의 생화학적 또는 조직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이다. 왕성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과 간세포 손상의 관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되었고, 항바이러스제제의 목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돕는 간세포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면역 증강 또는 면역 조절 약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페론 알파(IFN-α)와 Thymosinal(Tal)과 치료 백신이고 항바이러스제제로서 중요한 것은 Famciclovir와 Lamivudine이다. 인터페론 알파는 대개 3백만 단위를 일 주일에 3회 근육 주사하여 약 6개월 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5백만 또는 천만 단위를 일 주일에 3회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6개월이 아닌 1년 정도를 주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계속)